

새 정부 초대 총리 인선 착수...광주·전남 인사 발탁 주목

후보 5배수 압축 윤 당선인에 보고 명단 검증팀 넘겨 본격 인사 검증 박주선·한덕수·박용만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의장의 기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윤석열 당선인 측에 따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인사팀 자료를 토대로 총리 후보를 5배수 가량 압축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그중 일부 명단을 검증팀에 넘겨 본격적인 인사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리 인선에는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송부, 인사청문특위 구성,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 본회의 표결 등을 거치는 데 약 35일이 걸린다. 이에 앞서 인사검증 자료 조화와 검토에 일주일 가량 걸리는 만큼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역산하면 이번 주에는 검증에 돌입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와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초대 총리로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발탁되지 않는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 주변에서는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전 국회의장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 인수에 과감히 문재인 정부와의 소모적 갈등으로 취임 전에 정치적으로 실점, 국민 통합 카드로 전남 출신의 박 전 부의장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부의장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정몽 'DJ맨' 인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성장한 4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호남을 뿌리로 하는 거대 야당과의 소통에도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여소야

대의 상황에 적합한 총리 카드라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호남의 인적 네트워크가 크게 취약하다는 점에서 박 전 부의장 총리 카드는 강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유력 후보로 꼽히지만 건강 문제가 약점이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되지만 최근 학자로서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마무리되면 당권에 도전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5년 뒤 대권을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 당선인이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 전문가를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맥락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두루 중용된 통상 전문가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다만 올해로 73세라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된다. 박용만 전 두산 회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산업 현장에서 40여 년 활동한 기업인으로 민주당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다. 재발 출신 총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권역세 인수위 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원만한 캐릭터의 4선 중진이지만 윤 당선인의 측근이라는 점이 오히려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초대 총리 후보는 거대 야당의 십자포화 검증이 예상되는만큼 윤 당선인 측은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10여 명의 검증팀이 삼청동과 통의동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무실·인사권·추경’ 실타래 풀고 인수인계 동력 확보하나

문 대통령·윤 당선인 무슨 얘기니 할까

허심탄회한 대화 강조하며 말 아껴

MB 사면도 진전된 입장 나올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8일 대선 후 첫 회동을 하면서 꼬였던 각종 실타래가 풀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공동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고 제안하고, 윤 당선인이 ‘윤 당선인은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화답하면서 이번 회동이 성사됐다.

공식적인 의제 설정 요구를 견어내고 일단 테이블에 마주앉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동은 대선 이후 양측 간에 각종 국정 현안을 두고 극한의 대치를 반복해온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대면하는 첫 자리인 만큼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5년 만의 정권교체 준비 작업에 착수한 윤 당선인으로서의 각종 국정 과제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회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이번 회동과 관련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지난 16일로 회동을 예정했다가 당일 오전에 전격 취소한 바 있다. 특히 그 배경에 공공기관장 인사권 문제가 거

론되면서, 이 문제가 신규 권력 간 정면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 21일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실상 신규 권력 간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최근의 이런 극한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19일 만에 성사되는 이번 회동은 양측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정국을 수습해나갈 중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통합’을 국정 운영의 일선으로 강조해왔다. 정권 이양 과정에서 ‘떠나가는 권력’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노출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윤 당선인의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극단적 ‘여소야대’가 될 국회 상황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갈등 요인에도 윤 당선인 측이 마지막까지 회동 성사에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온 것도 최소한 문 대통령과의 ‘바통 터치’만큼은 순탄하게 진행해야 협치의 동력을 다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부 의제에 관한 잇단 질문에 김 대변인이 시종일관 ‘허심탄회한 대화’만을 강조하며 말을 아낀 것도 회동 전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따른 안보 문제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 공감대를 부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의 회동 성사로 정국 수습의 물꼬가 트였다고 해서 불길을 다잡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윤 당선인으로서 당면한 쟁점은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진전된 입장을 끌어낼 수 있을지다.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비비 집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임 이후 ‘임시 관저’ 거주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또다른 ‘인사권 뇌관’으로 떠오른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문제가 감사원의 ‘반기’로 일단 해소된 듯 보이지만 임기말 ‘알박기 인사 논란’ 전반에 대한 양측간 신경전이 이어질 공산은 여전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과 맞물려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2차 추경 조기 추진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낼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대화의 물꼬를 튼다고 해도, 각종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 초기의 목적을 거둘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건의 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구 권력 측에 ‘발목잡기 프레임’이 덧씌워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단일 ‘빈손’으로 돌아오더라도 윤 당선인 측으로서 큰 손해는 아니라는 설파도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인수위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조기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이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고됐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25일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주택 공급을 현 정부의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특히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에 직접 참석해 이런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해 민간 주택 공급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더욱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대해 인수위는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

도록 면밀히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들은 국토부가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30청년층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참사 등 잇따르는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도 인수위는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자율자전거, 플라잉카, 드론 등 국토교통 관련 신산업, 교통 체계 개선, 지역 간 교통망 연결성을 높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http://www.greenfuneral.kr/

光州시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I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공 등VIP전 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내사이더리 정회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